

전후 80년 평화선언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 비참한 오키나와 전투.

그로부터 80년이 지났습니다.

이 아름다운 섬은 격렬한 전쟁에 덮쳐져 철의 폭풍이 풍요로운 자연과 풍경을 뒤바꾸고, 귀중한 문화유산과 20만여 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 땅에는 전쟁으로 흩어진 무수한 생명이 잠들어, 영원한 기억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모님과 형제자매의 얼굴을 보고싶다”는 마음을 품은 채, 억울한 심정으로 세상을 떠난 생명.

“살고싶다”는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며, 생에 대한 갈망을 안고 스러져 간 생명.

‘이름 지어지는 것’조차 없이 사라져 간 어린 생명.

그야말로 ‘있는 지옥을 하나로 모았다’라고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오키나와 현민의 가슴 깊이 각인된 슬픔은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 너무나도 처참한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과 교훈은 전쟁체험자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후세에 전하고자 남긴 증언과, 오키나와 전투 연구자의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키나와 현민의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의 원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펼쳐진, 주민을 끌어들이는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과 교훈을 현민이 하나가 되어 부단히 노력해 세대를 넘어 계속해서 지켜 전해 나가는 것은,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요.

오키나와의 역사를 돌아보면 류큐 처분, 오키나와 전투, 미국 통치기 등 고난의 길을 걸어왔으며, 본토 복귀로부터 53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광대한 미군 기지가 집중되어 미군 등에 의한 사건·사고, 미군 기지에서 비롯된 환경문제, 그리고 헤노코 신기지 건설문제 등 과중한 기지 부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재 세계 각지의 전쟁·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더불어 핵보유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움직임도 보이는 등, 안보환경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고난의 역사를 걸어온 오키나와는 '누치 두 타카라(목숨은 곧 보물)'를 무엇보다도 중시하여,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계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작은 오키나와에서 부조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해, 그리고 세계의 항구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신중히 고민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비록 미약할지라도 행동에 나서고자 합니다.

저는 전후 80년의 큰 고비를 맞이한 지금, 전후 90년, 100년을 내다본 장기적인 시점에 서서 세계의 항구평화를 위해 오키나와가 완수해야 할 역할을 지금 여기에 내걸어 세계에 널리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제평화연구기구 창설'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역사적 사실에 이바지하는 연구나 국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는 연구의 추진을 위해 연구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둘째, '오키나와 전쟁 유적의 보존·활용'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오키나와 전투의 기억을 계승하기 위해 말 없는 이야기꾼이라 할 수 있는 전쟁 유적을 보존하고, 비참한 오키나와 전투의 교훈을 담은 유산으로 정비하여 장차 세계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셋째, '핵군축 및 핵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히로시마·나가사키와 연계하여 핵군축 및 핵무기 폐기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얼라이언스'에 참가하고, 인류를 파멸로 이끄는 모든 핵무기의 폐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전후 80년은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저는 비록 즉각적인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곳 오키나와에서 평화를 지속적으로 전하며 행동하는 것이 세계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선조들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만국진량'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함께 항구적 평화 실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마쿠투바(오키나와 섬 말)-영어번역 에센스>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과 교훈은 전쟁 체험자의 증언과 수많은 연구의 축적에 의해 실증되어 계승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오키나와 현민의 평화를 희구하는 마음의 원점이 되고 있다.

오키나와 전투의 실상과 교훈을 세대를 초월하여 지켜 나가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자, 다음 세대에 이어가야 할 '오키나와의 마음'이다.

선조로부터 계승해온 '만국진량'의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진정성을 갖고 세계 항구평화의 실현에 공헌하는 역할을 다한다.

오늘, 위령의 날을 맞아 희생되신 모든 영령에 대해 삼가 애도의 뜻을 전함과 더불어, 항구평화에 공헌하는 오키나와를 목표로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 나갈 것을 결의하고 여기에 선언합니다.

2025년 6월 23일

오키나와현지사 다마키 데니